

영암호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 육성 기반 구축 속도

전남도,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관광·레저 기반 구축·개발 업무협약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 연계 주변 개발 기본구상 연내 마무리

영암호와 주변 서남해안 일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세워 영암호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남도, 해남군, 영암군,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관계기관·공기업·대학은 개발계획 구상 및 협력모델 구축, 정부 공모사업 공동 대응 및 행정 지원, 민간 투자자 확보 및 산업생태계 조성, 관광·레저 교육 기반시설 구축 및 인재 양성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해남군, 영암군,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대, 목포해양대 등과 함께 서남해안 복합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구축 및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명현관 해남군수, 민일기 영암부군수,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임한규 목포대 산학연구처장, 운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사 채정섭·정경호·이상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남해안 복합해양관광 거점 도시를 건설,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조기에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목포대와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를 연계하는 영암호(내수면) 및 주변 해양 관광·레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각 부처의 국비 지원사업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다. 민

간 자본 투자 유치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영암 고속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연결도로 등 인근 교통 기반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영암호, 솔라시도를 편히 찾도록 할 예정"이라며 "영암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영암-해남-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발판을 마련,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 관광·레저의 거점이자 관문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3년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



김영록(오른쪽 세번째) 전남지사가 20일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전남도-전남도교육청 행정협의회'에서 김대중 도교육감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 선정 협력 특구 추진단 구성...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등 제안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교육발전특구 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전남도교육청에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 및 영어진행 수업 내실화, 유보통합 누리과정 급식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20일 전남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3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각 기관 주요 간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행정협의회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교육사업의 협치와 조정을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기구다. 2014년부터 개최해 2022년까지 총 44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

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안)'에 맞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또 전남도가 제안한 지역농·수산물 생산·유통·분담비율 조정 등 3건의 안건과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전남 고졸 일자리에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은 스위스의 비영리교육재단인 바칼로레아의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말부터 5일간 전남에서 개최 예정인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교육청과 함께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마이스산업 활성화 발판 인천 엑스포 참여 마케팅 활동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3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에서 전남 이색 지역 명소(유니크베뉴)와 마이스 기반시설을 중점 홍보해 마이스산업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2023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마이스협회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해 개최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마이스 박람회다. 올해는 해외 여행사, 학·협회 등 바이어를 비롯해 지자체, 관계 기업 등 마이스 관계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공동으로 전시·홍보관을 운영해 전남 마이스 인센티브 제도와 전남 유니크베뉴 시설 및 회의 시설을 중점 홍보했다. 또 마이스 행사 유치 일환으로, 네트워크 형식으로 전남 마이스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창업기업 발굴·투자 사업 본격화

355억 창업펀드 결성...티인베스트먼트와 투자 활성화 협약

광주시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사업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355억원 규모의 '창업성장사다리펀드 시리즈 에이(Series A) 1호'를 결성하고, 기업 발굴과 투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 펀드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는 이날 지역 유망 투자기업 발굴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를 통해 수시 투자유치 발표(IR)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투자 대상 기업 발굴 및 연계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펀드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는 내년까지 광주에 지사를 설립하고 지역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5000억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3259억원 규모의 펀드 7개를 조성했다.

앞으로 3년 간 10개 펀드로 세분화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창업성장사다리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시리즈 에이(Series A) 1호'는 그 첫 번째 결성 펀드다. 광주시는 '시리즈 에이 1호'에 이어 오는 2025년 까지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와 기업당 투자 규모에 따라 창업성장사다리펀드를 연차별로 조성한다. 예비부터 초기단계 기업에는 기업당 1억~5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시드(Seed) 펀드' 5개(총 100억원), 초기 기업에는 10억~30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시리즈 에이(Series A) 펀드' 3개(총 900억원), 도약 단계 기업에는 20억~50억원 규모로 투자하는 '시리즈 비(Series B) 펀드' 2개(총 1000억원)로 구성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금이 필요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의 창업지원 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남도의병 선양자문단 유적 찾기 제보 봇물

유물 일부 道 문화재 지정·국가문화재 승격 추진키로

전남도가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의 다양한 활약과 제보가 이어져 오는 2025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에 반영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남도의병 선양자문단' 회의를 열어 도내 의병과 유물, 의병 유적지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접수 의견은 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남도의병 선양사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우수 제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에 포함할 방침이다. 실제로 선양자문단의 제보·건의 가운데 구례 석주관 전투 의병장 '왕득인·왕의성' 부자의 의승병 요청 격문과 당시 사용된 도검은 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강진과 해남 경계의 성산 '병치'에 위치한 '진터산성'은 현지 조사와 관련 문헌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터산성'은 정유재란 당시 해남에서 넘어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의병이 주둔했던 진지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의병유물 및 의병유적지 소개, 유물 기증 유도, 문화재 지정 건의 등 선양사업 기초자료 수집에 자문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박물관 건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영, 시군 의병 관련 자문과 남도의병 선양사업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남도의병 선양사업 추진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글 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